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동결…4년 연속 '69%'

국토부・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정부 추진안 심의 의결 전년 공시가 1.5% 이내 등락 적정 분석도…균형성 제고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 화율(시세반영률)을69%로유지하기로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이다.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 지를 해소하기 위해 균형성을 단계적으 최한 데 이어 같은 장소에서 중앙부동산 로 높여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기 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6년 부동산 로했다. 가격 공시 추진안'을 심의 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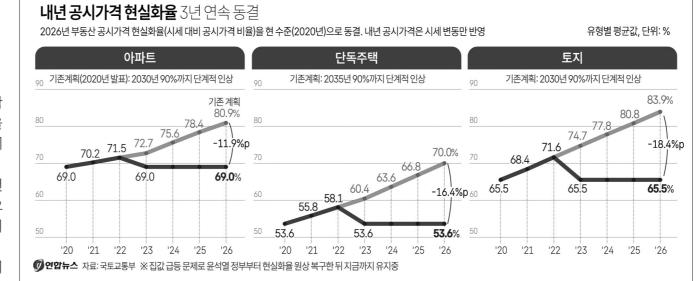
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80.9%에 달할 예정이었던 공동주택의 공 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을 포함해 4년 연 속 69.0%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균형성 제고차 공시 추진안에 따라 내년에 부동산 공시가격 가격 현실화율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경 우 전년 공시가격을 1.5% 이내 수준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상 내년에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분석 결과도 공



거나 인하해 현실화율을 조정하는데, 조정 폭을 전년도 공시가의 1.5% 이내에서 상• 하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얘기다.

국토연구원 박천규 주택・부동산연구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 부장은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조정을 수 계획 발표를 통해 2035년까지 제시했던 연 거나 높은 주택 단지의 공시기를 인상하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별 목표는 현재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

우세했다"면서 "공시가격 1.5% 이내 조정 폭은 이의 신청률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 다"고 설명했다.

후 다시 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 정재원 부동산평가과장은 "중장 기로 연도별 시세반영률을 어떻게 설정할 또 이전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진행됐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 계획 (2020~2035년)이 수립됐지만, 집값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원상 복구했으나 부동산가격공시법 등에 따라 현실화 목표는 유지되고 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 감사에서 올해 현실화율을 조정할 계획이 없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그 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정부 추진안에 따라 산정되는 내년 도 공시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내년 1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해 4월 최 종 결정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 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초 자료 로 활용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재가동 환영…상생가치 일깨워"

광주경총·광주상의 입장문 지역경제 회복 기대감 고조

대형 화재로 6개월 간 멈춰 선 금호 타이어 광주공장이 본격 재가동을 예고 한 것과 관련해 지역 경제계가 깊은 환 영의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19면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3일 보도자료 를 통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재가동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경총은 금호타이어 광주공 장 재건과 함평 신공장 건설 노사 합의 에 대해서도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깊 은 감사를 전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큰 화재 피해 속에서도 구성원 고용보장을 전제로 한 달여간 치열한 협의를 진행, 합의안을 도출했다.

광주경총은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준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복구가 완료된 광주 1공장은 우선 하 루 4000본 생산을 시작하고 공정 정상 화 속도에 맞춰 6000~1만본까지 점진 적으로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전반에 실질적 회복 신호를 줄 것 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으로 기대된다.

공장은 반제품을 결합하는 성형 공정과 타이어 형태를 완성하는 가류 공정을 말했다.



화재 피해를 입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공장 재가동을 하루 앞둔 13일 직원 안전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전날 고용 안정·노사공동발전위원회를 열고 공장 가동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기능직 386명을 투입, 14일부터 하루 생산 4000본 규모로 공장을 가 동한다. 내년 초 하루 생산 6000본 규모, 최종 1만본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맡고, 2공장은 피해를 피한 일부 설비 당하게 된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금호타이 어 광주공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생산 재개는 침체된 지역 산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 "이번 재가동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금 공정 운영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 호타이어가 위기를 딛고 더욱 강한 글 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를 활용해 검사·선별·출하 공정을 담 업계와 지역경제 전반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 광주상의는 금호타이어가 2공장 전 를 위해 노사가 함평 신공장 건설 추진 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화재 피해를 입지 않은 공정과 1공장의 안정적 가동 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신속하게 생산 체계를 마련한 점에 주

특히 노사 양측이 어려운 여건 속에 서도 긴밀히 소통하며 생산라인 정비와

이날 광주상공회의소 역시 "지역 산 재가동 인력 운영과 관련한 세부 합의 를 이끌어낸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 난 7월 화재 이후 중장기 경쟁력 강화 에 합의한 점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 아직 본격적인 착공 단계로 이어지지 는 않았지만, 미래 생산체계 고도화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함께 고민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 강조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10·15대책 반사이익…광주 주택사업경기 방긋

11월 80.0 2개월 연속 상승 수도권 규제 강화 등 여파

광주지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2개 수치다. 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심으로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크게 어두워졌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이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거둔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 월 광주지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0.0을 기록했다. 지난 9월 66.6으로 하락 전환 한 이래 2개월 연속(7월 77.7) 상승 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내다보 는 업체 비율이 더 높음을 뜻한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주산연은 10·15부동산 대책으로 수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권 규제가 강화되면서 반사적 이익을 얻

은 결과로 해석했다.

반면, 전남은 55.5를 기록하며 전월 (70.0) 과 견줘 14.5p 하락했다.

이는 올해 1월(53.3) 이후 가장 낮은

전국적으로는 전월 대비 20.7p 하락한 10·15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을 중 65.9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31.0p 하락해 64.1로 전망됐고, 비수도권은 18.5p 떨어 진 66.3이다.

10·15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규제 강화 와 규제지역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1 사업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주산연은 봤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13.1p 하락한 73.4로 전망됐고, 자재수급지수는 3.2p 상승한 96.6으로 전망됐다.

10.15 대책으로 투기과역지구가 확대 지정되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수도권 청약시장도 강화된 대출규제로 위 축되는 등 주택공급 및 분양시장 전반의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은 광주전남본부 무료강좌 21일 최경환 KAIST 교수 특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21일 '2025년 한국은행 금융경제강좌'의 6회 차 강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차에서는 최경환 한국과학기술 원(KAIST) 교수가 '자동차 산업의 혁신 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과 미래'란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수를 거쳐 현재 KAIST 조천식모빌리티 일 조기 종료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미래형 자동차 10% 선할인 정책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 와 모빌리티 시스템 제어 분야 전문가다.

이번 강의에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해 자율주행, 전기차 등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행사를 운영한다. 기술 변화를 살펴보고, 광주지역 주력 산 업인 자동차 산업의 최신 동향을 다룬다.

한국은행 금융경제강좌는 사전 신청 없 니 무료로 참가 가능하다. 이산하기자 지 환급받을 수 있다.

광주 서구, 온누리상품권 20% 환급 연장

17일부터 자체예산 6억 투입…120억 지역경제 파급 효과

광주 서구가 오는 17일부터 디지털 온 택을 받을 수 있는 '서구 골목페이 이벤 을 수 있어, 서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번 행사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주민 릴 수 있다. 최 교수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 생활비 절감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10 해 기획됐다.

> 서구는 예산 6억원을 투입해 예산 소진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까지 일주일 단위로 6회에 걸쳐 환급

서구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디지 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회차별 최대 2만원까

또 광주시의 10% 환급 행사와 연계할 누리상품권 결제 시 최대 20%의 할인 혜 경우 소비자는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 '온누리상품권 20%' 할인되는 혜택을 누

소비자는 서구에서 일주일에 온누리상 품권 20만원을 소비하면 4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앞서 서구는 지난 3일 소상공인시장진

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한국조폐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온누 리 환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약속했다. 특히 서구는 전국 최초로 지역 전역 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골목경제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그 결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유통액이 지난해 36억원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524 억원으로 14.5배(488억원) 증가했다. 이 는 상인 매출 증대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 활비 절감으로 이어지며 '체감형 착한경 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경제정책을 통해 골목경제 의 회복과 순환을 이끌고 있다"며 "연말 대세일 기간 동안 서구에서 온누리상품 권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웃을 서구는 이를 통해 약 120억원 규모의 수 있는 착한경제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한편 김 청장은 지난 12일 청와대 영빈 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전국 시 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 참석 해 서구의 '골목형상점가 100% 지정' 및 '온누리상품권 연계 활성화' 정책을 소개 (121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온 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한전KDN, BS산업과 솔라시도 분산특구 기반 조성 분산형 전력망·AI 데이터 센터 구축 협력

한전KDN은 13일 BS산업과 서울 BS한 양타워에서 '분산형 전력망 및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원 솔라시도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분산 에너지 특구 사업의 핵심 기반을 조성을 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식은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김 만겸 BS산업 대표이시를 비롯한 양사 관 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 소개 및 협 약 내용 공유, 협약서 서명, 협약 이행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AI 데이터센터 신 규구축과 운영, 솔라시도 분산특구 내 분 산에너지사업 공동 추진, 솔라시도 태양 광 발전소 운영 데이터 활용 방안 등 다각 적인 방면에서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특히 솔라시도 분산특구와 분산에너지 공동 추진에 있어서는 △분산에너지 전력 망 운영 플랫폼 구축 △정부 R&D 공동 참여 △운영 데이터의 활용 및 공유 △분 산에너지 사업자 지분 참여 등에 대해 협 ICT 전문 공기업으로서 공공 ICT 역량을 력하기로 했다.

를 에너지 미래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한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AI 데이터센터 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구 현하겠다"고 전했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이번 협약은 한전KDN이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분산 에너지 플랫폼 구축 전략과 부합하며 광 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인공태양 실험시 설 유치와 함께 에너지 산업 중심 거점화 추진과도 연계되는 것"이라며 "에너지 민간과 함께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국가 김만겸 BS산업 대표이사는 "솔라시도 전력망의 혁신 선도로 국민의 신뢰를 받 는 공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 전KDN의 기술력과 협력이 큰 힘이 될 했다. 이산하기자 goback@gwangnam.co.kr